

“현실피리 ‘깨달음 지상주의’ 불교 망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조명제 교수 비판

윤리규범이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불교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깨달음 지상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불교평론이 2월 26일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수행, 정말 괜찮은가’ 열린논단에서 “불교 쇠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행문화 존중과 함께 실생활에 와 닿는 모델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단은 불교평론이 열린논단 60회를 맞아 진행되는 연속 기획의 첫 번째 자리로 3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수행풍토 진작과 불교쇄신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는 그동안의 모습을 담보하면 현대 인도와 중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윤리성을 너무 강조하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간화선 지상주의로 인해 역으로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폐단이 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국가와 유착하고, 맹목적인 ‘화쟁’ 하에 다른 종교와도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불교

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훌륭한 불교사상과는 별개로 역사를 보면 인도사회에서는 힌두교, 중국사회에서는 유교와 습합하며 결국 생명력을 잃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망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매력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현

이상주의 폐단 지적, 쇠신 촉구
간화선 위주 한국 수행풍토 분석
“실생활 와닿는 실천 모델 필요”
토론서는 승가 자성의 입장 나와

실에서 파부에 외닿는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천이론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 제시의 가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불교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찬반의 입장이 나왔다.

신승철 시인은 “불교는 존재론, 우주론 등 이상을 제시하는 종교로서도 의미가 있



2월 26일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는 불교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다.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혜숙 금강대 교수도 “불교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경전 속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적용하려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기 교원대 교수는 “간화선 중심 수행 문화가 사회윤리를 어설프게 넘어섬으로 인해 조계종단의 부도덕한 문제가 나온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윤리를 찾는 데는 불교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계율을 국한되지 않는 윤리규범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용덕 선생은 “21세기에는 한문보다 영어가 가까운 시대, 또 디지털 시대로 사

람들의 근기 조차 옛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며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숙제”라고 말했다.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열린논단에 참여한 법음 스님은 “불법의 유기적인 현실적용 법을 스님들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승가에서는 해방 후 50년간 우리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끝으로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은 “결국 불교는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며 “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행복한 템플스테이를 위해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안전매뉴얼’ 발간

안전사고 대처법 상세히 실어 각 사찰 인명 소생기방도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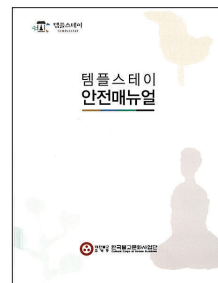
안전하고 행복한 템플스테이를 위한 안전 기준을 담은 자체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건강 및 안전한 템플스테이를 위한 ‘템플스테이 안전매뉴얼·사진’을 발간했다.

이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참가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두되는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응급처치 대응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운영사찰에 배포한 이래로 본격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단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연구진(총괄 최태대 교수의 협조)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빠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문헌조사, 현지 방문실사, 운영사찰 템플스테이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제작됐다.

최근 4년간 보험이 청구된 템플스테이 사고는 총 22건으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지난 2011년부터 참가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했다. 템플스테이 체합의 주된 공간인 산중(山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과 발목 염좌, 벌 쓰임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이러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함께 외상·질병 손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세한 대처법이 실려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기도폐쇄처치법 등의 응급처치법과 필수 의료물품, 의료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사찰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안내서라는 평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진화스님은 “이번 매뉴얼에는 참가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 응급처치, 재발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반영됐다”며 “안전한 템플스테이의 운영으로 국민들이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매뉴얼과 함께 안전물품이 담긴 기초 인명 소생기방(EMT기방)이 운영사찰에 보급될 예정이다. 기초 인명 소생기방은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현장에서 최적의 대응이 가능한 국제 표준 전문 응급기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짜 불상 30억 원 거래하다 경찰에 털리 악품처리 도굴문화제로 둔갑

중국에서 들어온 가짜 불상을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라며 속여 팔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월 17일 가짜 불상들을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수십억 상당의 불상이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원 모(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원 모 씨와 함께 시기를 피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 모 씨는 2월 12일 서울 마포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모조품 7점 등을 직접 발굴한 것이라고 속여 고미술품 수집가 전 모(60) 씨에게 약 30억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모 씨는 자신을 국내 최연소 불상 감정사라고 소개하며 감정이 50억 원 상당의 금동불상 7점을 30억 원에 넘기겠다고 말했으며 이를 믿지 않았던 전 모 씨가 경찰에 신고해 털리게 됐다.

노덕현 기자

남북불교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 성사될까

민추본, 23일 정기이사회 개최... 올해 사업계획 확정

5월 불교통일선언 발표 추진
‘공존·상생·합심’ 내용 담을 듯
대북 기금 마련 캠페인 전개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자승, 이하 민추본)가 올해 불교통일선언 발표와 함께 부처님오신날 등 남북합동법회를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 불교교류 확대 대비 대북기금마련 캠페인도 실시한다.

민추본은 2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과 임원 추천건을 논의했다.

민추본은 오는 5월경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을 발표하며, 부처님 오신날·조국통일기원·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만해스님 남북공동학술토론회와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보수 및 공동조사 실시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3기 민족공동체 불교 지도자과정 및 현장순례, 월례강좌, 민추본 지역본부 설립추진 등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남북불교교류 중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2억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많게는 20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 남북불교교류 확대에 대비한 대북기금마련 캠페인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존, 상생, 합심’을 기치로 한 불교통일선언은 향후 자문회의를 거쳐 종단 중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2월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진화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홍 회장이 추천했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확정여부는 논의된다.

회의에 앞서 민추본 이사장 자승 스님은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등 민추본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사진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사 지홍 스님(민추본 본부장), 정문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진화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범 스님(홍천사 주지), 종훈 스님(보광사 주지),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감사 천낙봉 변호사(법무법인 상목)가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원희룡 제주지사 역불정책 철회하라”

제주불교연합회, 16일 성명... 동산문화재 지침 반발

제주불교연합회가 제주도청의 문화재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탄해)는 2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지정한 ‘동산문화재지원에 관한 지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는 “반문화적인 신(新) 역불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불교가 제주도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불상을 보호하는 불전(佛殿)을 지을 때 ‘입면상 전면부의 간수는 외불 최대 5×3칸, 좌불 및 입불상은 최대 3×2칸(23.5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상(立像)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층으로 설계하도록 못 박았다. 사실상 규제 지침인 것이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9월에 제정한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의 전후후무한 문화정책은 반문화적이며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책”이라며 “1월 29일 ‘불

교문화재 관리 현황과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주도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청은 종교 편향 관점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왜곡해 보호시설을 획일화 축소하고 있다”며 “17세기 제주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제주불교를 말살시켰던 뼈아픈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제주도청이 지정한 지침이 제주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행이라고 성토했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사찰 경내지는 다른 육지의 사찰과는 달리 협소해 종종 구조로 한 곳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게 불사를 한다. 타 시도에도 없는 지침을 만든 것은 작은 웃을 만들어 큰 몸이 입히려는 발상”이라며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문화재보호지원을 특정사찰이 막대한 세계 혜택을 누리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해외 포교와 스님들 해외 연수

완벽한시설을 갖춘 사원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해외투자의 절호의 기회

“해외 포교와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

미국의 수도 와싱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9천여평의 45년된 불교사원입니다. 큰길에서 차량출입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조용한 사원입니다.

- 대웅전, 석가진신사리 봉안탑
- 100여대의 주차공간, 개인차고
- 3개의 전원주택과 우편주소
- 유치원, 놀이터
- 유기농밭, 소나무 산림



■ 미국국세청 인가 비영리재단으로 면세특허증 (본부동산과 물품구입의 대한 면세) ■ 가액 : 23억원 (시가 2.1 밀리언 달러)

연락처 : 이메일 americantemple0@gmail.com | ☎ 301-801-5454, 240-338-5331